<모스크바 및 全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 성하 2018 년 성탄절 메시지>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과 충실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모스크바 및 全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 성하의 메시지*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슬라브 민족과 그 고대국가의 명칭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곧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지극히 정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을 취하시어 탄생하신 이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와 더불어 창조주요 조물주를 이렇게 송영할 것을 호소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할지어다!" (그리스도 성탄 카논 제 1 이르모스)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시며 인류가 오래도록 고대해온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요한 I:18)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고 죽음의 독침이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 박사들이 예물을 바쳤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성하신 스승께 어떤 예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물은 그분 당신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심장(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잠언 XXIII:26).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삶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것이 박동을 멈춘다면 사람은 죽고 맙니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봉헌이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 안에 하느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온 사념이 오로지 '자아'로 가득할 때, 마음에 이웃을 위한 자리가 없을 때에는 그 안에 주님을 위한 자리도 없게 마련입니다. 마음 안 이웃의 임재 여부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염려하고 이에 자선행위로 응답하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즐겨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의 길을 즐겨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삶과 인류사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성한 사랑과 그분의 정의로운 분노의 발현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은 우리 루시 민족의 삶에서 비극적인 20세기의 사건들과 당대에 시작된 신앙의 박해에 대한 기억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충성을 증거한 신순교자들과 고백자들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에 있어서 혹독했던 그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애를 보이셨습니다. 즉, 루시 땅에서 총대주교제가 부득이 중단된 지 200년 만에 복구되었고, 교회는 어려운 시험의 시절 성주교 티콘이라는 지혜롭고 용감한 목자를 발견하고 수좌주교로 선출하였는데, 그가 지고하신 창조주의 어좌 앞에서 열렬히 기도함으로서 우리 교회와 민족은 시험의 도가니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각지에서 비탄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매일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마태오 XXIV: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느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의 위력을 무릅쓰고, 인간애와 가정적 가치들이 이를 파괴, 모독하고 변질시키려는 엄청난 노력들을 무릅쓰고 존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사람들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래지 않은 과거 수십년 동안의 박해와 현재 그 권위를 훼손시키려 발동된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장소로 존속하였으며, 존속하고 있으며, 또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의 시험들을 거쳐 역사적 루시의 민족들(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역자)은 자기의 영적 일치를 보존하고 갱신하여,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태평성대를 누리리라고.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류사에서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늘 신을 찾았지만,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가능한한 완전한 형태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당신을 인류에 드러내신 것은 오직 독생자의 육화를 통한 것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덕에 사람들을 합당케 하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XIV:27)고 약속하시어 평화의 굳건한 기반을 놓기 위하여 죄의 지상으로 오십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적 루시의 민족들 그리고 지구상 모든 민족들에게 금년은 평화롭고 태평한 해가 되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느님 아기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희망을 발견하고, 인간의 삶을 변모시키는 신성한 사랑의 힘을 신앙을 통하여 감지하는 것을 도우시리.

아멘

+ *키릴로스, 모스크바 및 全 루시 총대주교*

2017/2018 년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 모스크바

(본 총대주교 메시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신학원 총장 암브로시오스 페테르고프 대주교의 축복에 따라 본 신학원 학생 필라레토스 최지윤에 의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